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20120320 vol.79

주요 FTA로 본 한·미 FTA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Contents

1. 들어가며
2. 한·미 FTA의 추진 과정 및 상황
3. 기존 FTA 사례를 통해 예상되는 한·미 FTA 영향
4. 전북의 입장에서 본 한·미 FTA의 효과
5.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Issue Briefing

연구진 **이강진** 연구위원
김재구, 이창우, 김수은 부연구위원
유수영, 정용한, 최성환 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2년 3월 20일 vol.79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발췌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주요 FTA로 본 한·미 FTA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 | |
|---|----|
| 1. 들어가며 | |
| 1) 한·미 FTA 본격 발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5 |
| 2) 한·미 FTA의 발효에 대한 효과 재조명 필요 | 5 |
| 2. 한·미 FTA의 추진 과정 및 상황 | |
| 1) 한·미 FTA의 개요 | 5 |
| 2) 한·미 FTA 주요 내용 | 5 |
| 3) 한·미 FTA 주요 이슈 | 7 |
| 3. 기존 FTA 사례를 통해 예상되는 한·미 FTA 영향 | |
| 1) 한·칠레 FTA | 7 |
| 2) 한·EU FTA | 10 |
| 4. 전북의 입장에서 본 한·미 FTA의 효과 | |
| 1) 거시경제적 영향 | 13 |
| 2) 미시경제적 영향 | 16 |
| 3) 주요 산업별 영향 | 17 |
| 5.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 |
| 1) 대응전략 | 18 |
| 2) FTA 활용방안 | 19 |

1. 들어가며

- 한·미 FTA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에 이어 여덟 번째로 체결되었으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지난 15일 한·미 FTA 본격 발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생산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음
 - FTA는 생산과 소비,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받는 영향을 모두 파악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기 체결된 주요 FTA 영향을 생산 및 소비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도내에 미치는 한·미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칠레 FTA,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전북지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2. 한·미 FTA의 추진 과정 및 상황

● 추진 경과

| | |
|---------------|-------------------------------|
| ○ 2007. 4. 2 | 한·미 FTA 협상타결 |
| ○ 2010.12. 3 |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통상장관 회의 개최) |
| ○ 2011. 6. 3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 ○ 2011. 9.16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교통상위원회 상정 |
| ○ 2011.10.12 | 미 상·하원 본회의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 ○ 2012. 3. 15 | 한·미 FTA 발효 |

● 주요 이슈

-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 래칫, 스냅백(snapback) 조항
- 미국 요구사항인 승용차 관세조정 및 세이프가드 도입을 수락하고 우리 요구사항인 냉동 돼지고기(관세25%)의 관세철폐 시한 2년간 연장 재협상

3. 주요 FTA 사례 분석

● 한·칠레 FTA

- 주요내용
 -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

으로 포함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체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음

- 예상효과

-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 구분 | 경제적효과 |
|------------|--------|
| 후생수준(억 달러) | 9.6 |
| 수입물가(%) | -0.001 |
| GDP | 0.01% |
| 대 칠레 수출 | 6.6억\$ |
| 대 칠레 수입 | 2.6억\$ |
| 대 칠레 무역수지 | 4.0억\$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2002

- 결과

- FTA 발효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관세감축이 시작된 품목들의 향후 수출증가가 기대됨
- FTA 발효 이후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우려했던 농림축산물 수입증가는 낮은 수준에 그침
-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음

● 한·EU

- 주요 내용

- 전 공산품목에 대해 EU측은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 철폐
-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한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한 분야는 소수이며,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등에서 한·미 FTA 개방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합의, 일부 통신서비스와 환경서비스는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하되 유예기간과 포괄적 규제권한을 유보함
- 농산물 양허협상에서 한국 측은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였으며, EU 측은 상업적 이익이 있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

- 예상효과

- 수입 비중과 관세율이 높았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내 수입 증가 예상
- 정밀화학, 산업기계류, 자동차부품 등은 국내 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세율이 높아 피해 우려를 예상함
- 농산품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국내 와인 수입시장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장은 상당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로 경쟁력 저하로 인해 한국 내 EU 서비스 부문의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 결과

- 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 품목들의 수출입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FTA 발효시점을 기점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

4. 전북의 입장에서 본 한·미 FTA 기대 영향

● 거시적 및 미시적 측면

- 한·미 FTA 체결 후 전북은 미국과의 교역확대는 가져올 수 있으나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은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에 대한 글로벌소싱의 강화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수입확대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 증대가 기대되나 FTA 마케팅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체감적인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
- 농축산분야 생산 위축 및 제조업의 산업내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내 양극화 현상 발생 예상

● 산업 측면

- 승용차 부품의 경우 즉시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업체가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으로 대응할 경우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전북의 사양 산업인 섬유류에 대한 쿼터(비관세장벽) 폐지 및 관세인하로 섬유산업의 수혜 기대
- 부품 및 소재를 미국으로부터 대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對일 의존적 자본재 수입구조가 극복되는 계기
- 협상에서 제외된 쌀과 수입금지된 과실류에는 영향이 없으나 축산물과 채소 및 곡물의 수입 급증 예상
- 한·칠레 FTA, 한·EU FTA 사례를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긍정적 측면은 對미 투자유치가 용이해진다는 면이 있으나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 시장 독점이 우려됨

5. 전라북도의 대응방향

● 제조업 분야

- (자동차) 상용차의 경우 미래그린 핵심부품 R&D 지원과 상용차부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로 수출산업화 추진
- (기타 제조업) 산업내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발굴 필요

- 개발된 부품의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KOTRA 등 국제무역상사와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 농축산업 분야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직접적인 피해분야(축산·과수)에 농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 집중 지원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생산·가공·체험·관광이 결합한 6차 산업 활성화
-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한 농어가 경영안정 확충

● 서비스(소상공인) 분야

- 도 자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및 E-비즈니스 등 지식서비스 사업진출 지원
-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보호 (전통시장 현대화 및 경영지원 활동 강화, 중소도매물류센터 규모화 및 활성화, 지역 고유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 중소기업 보호활동 강화 (대기업 ↔ 중소기업 구매상담 및 구매 강화, 중소기업 물품 구매활동,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 FTA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내 중소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육성지원 확대
-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유도
- 지역내 수입상간 가격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 등을 통해 정책 개선

6. 전라북도의 FTA 활용방안

● (홍보) 기업 및 시·군의 수요에 맞는 홍보

- 도내 중소기업 CEO 및 지역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홍보 브로셔 및 FTA활용 매뉴얼 제작 및 배부, FTA 주요 정보 및 동향 메일 발송
- FTA 네트워킹 산업 유치

● (FTA인력양성) FTA 전문가 양성교육 확대

- 기업실무자 대상 FTA 관련 전문교육(원산지 관리사 등) 실시를 통한 전문가 양성
- 관세사·원산지 관리사 양성 및 도내 대학 내 FTA 정규 강좌 개설

● (대응체계) 다양한 FTA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

- [전라북도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FTA 원산지 인증지원산업 유치
- FTA 컨설팅 지원단 운영

1. 들어가며

1) 한·미 FTA 본격 발효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FTA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FTA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FTA의 관세에 대한 양허 스케줄이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FTA 효과가 관세 스케줄에 따라 나타날 것임
- 한국뿐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부품등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파급효과 또한 기대되므로 전체적인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

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효과의 재조명 필요

○ 기존 한·미 FTA에 대한 분석은 생산적인 측면이 강조됨

- 한·미 FTA의 발효가 본격화 됨에 따라 FTA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한·미 FTA 마케팅 진행)
- 기존의 연구는 생산측면이 강조되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무역 및 생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볼 것으로 평가함
-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생산자 측면에서 생산자들의 보호 또는 산업보호 측면을 부각하여 설명함

○ 한·미 FTA 효과를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

- FTA는 생산과 소비,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함. FTA의 목적이 무역수지 흑자가 아니라 교역의 확대로 인한 경제규모의 증대와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효용의 증대에 있음
-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의 對미 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경쟁 격화를 전망
-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은 불확실함

○ 주요 FTA 분석을 통한 한·미 FTA의 대응 및 활용방안 모색

- 기존의 FTA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FTA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로 인해 전북 지역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판단하고자 함
-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간접적인 파급효과 또한 기대되므로 전체적인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

2. 한·미 FTA의 추진 과정 및 상황

1) 한·미 FTA의 개요

○ 추진 개요

-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로 세계최대의 미국시장 선점 발판 마련을 위해 추진
- '07. 4. 2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미국측에서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을 후 쇠고기는 우리측의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제외되고 자동차 분야만 '10.12.3 추가협상 타결, '11.10.12 미의회 통과

○ 추진 경과

| | |
|---------------|------------------------------|
| ○ 2007. 4. 2 | 한·미 FTA 협스타결 |
| ○ 2010.12. 3 |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통상장관 회의 개최) |
| ○ 2011. 6. 3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 ○ 2011. 9.16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교통상위원회 상정 |
| ○ 2011.10.12 | 미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 ○ 2012. 3. 15 | 한·미 FTA 발효 |

2) 한·미 FTA 주요 내용

○ 한·미 FTA 구조

- 1장·10장 : 품목별로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율을 감축해가는 일정규정(관세양허표),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등 상품무역에 대한 구제 등을 다룸
- 11장·14장 : 서비스 무역에 대한 시장개방을 다룸. 네거티브방식 개방(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항목 외에는 모두 개방, 미국은 각각 12개, 6개)
- 15장·24장 : 한·미 FTA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추후 개정, 발효 등 무역규범을 다룸

○ 한·미 FTA의 지위

- [미국의 경우] 한·미 FTA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미국법에 영향이 없으며 미국법과 충돌하면

한·미 FTA 효력이 없음(미합중국 법령)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 【한국의 경우】 적어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특별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도 소수 있음

○ 한·미 FTA 주요 품목별 양허내용

<표 1> 한·미 FTA 주요품목별 양허내용

| 품 목 | | 한·미 FTA | |
|---------|---------------|--------------------|---------------------|
| | | 한국 | 미국 |
| 자동차 | 중대형 | (발효시 4% 인하) 5년 | (2.5%) 5년 |
| | 소형 | (발효시 4% 인하) 5년 | |
| | 기타(하이브리드) | (발효시 4% 인하) 5년 | (2.5%) 10년 |
| 화물 자동차 | 승합차(10%) 즉시 | (10%) 즉시 | (2%) 3년 |
| | 디젤화물차(5톤 이하) | (10%) 즉시 | (25%) 10년 |
| | 디젤화물차(20톤 초과) | (10%) 즉시 | (25%) 10년 |
| 자동차 부품 | 도로주행 트랙터 | (8%) 즉시 | (4%) 3년 |
| | 디젤엔진부품 | (8%) 즉시 | (2.5%) 즉시 |
| | 카스테레오 | (8%) 즉시 | (0~2%) 즉시 |
| | 기어박스 | (8%) 즉시 | (2.5%) 즉시 |
| 선박 | 타이어 | (8%) 즉시 | (0~4.2%) 즉시, 5년 |
| | 선박완성품 | (0~8%) 즉시, 3년 | (0~2.7%) 즉시 |
| | 부품 | (0~8%) 즉시, 3,5,10년 | (0~6.7%) 즉시 |
| 컬러TV | 컬러 TV 완성품 | (8%) 즉시 | (0~5%) 즉시, 3년 |
| | 천연색음극선관 | (8%) 즉시 | (3%) 즉시 |
| | 수상기 | (8%) 즉시 | (3.9~5%) 즉시 |
| 냉장고 | 냉장고 완성품 | (8%) 즉시 | (1.9%) 즉시 |
| | 부품 | (8%) 즉시 | (0%) 즉시 |
| 에어컨 | 에어컨 완성품 | (8%) 즉시 | (0~2.2%) 즉시 |
| | 순모직물 | (13%) 즉시 | (7~25%) 즉시 |
| 섬유 및 의류 | 편직제의류(61류) | (8~13%) 즉시 | (0~32%) 즉시, 10년 |
| | 직물제의류(62류) | (8~13%) 즉시 | (0~28.6%) 즉시, 10년 |
| | 합성섬유(54/55류) | (8~13%) 즉시 | (0~25%) 즉시, 10년 |
| 의료용 기기 | X선방사선기기 | (8%) 즉시, 3,10년 | (0~1.4%) 즉시 |
| | 초음파영상진단기 | (8%) 10년 | (0%) 즉시 |
| | 콘택트렌즈 | (8%) 3년 | (2%) 3년 |
| | 자기공명촬영기 | (8%) 10년 | (0%) 즉시 |
| 의약품 | 심전계 | (8%) 10년 | (0%) 즉시 |
| | 완제의약품 | (8%) 즉시, 3년 | (0%) 즉시 |
| | 비타민제 | (6.5%) 즉시 | (0%) 즉시 |
| | 호르몬제 | (0~6.5%) 즉시 | (0%) 즉시 |
| 화장품 | 항생제 | (6.5%) 즉시 | (0%) 즉시 |
| | 기초화장품 | (8%) 10년 | (0%) 즉시 |
| | 페이스파우더 | (8%) 즉시 | (0%) 즉시 |
| | 향수 | (8%) 3년 | (0%) 즉시 |
| | 립스틱 | (8%) 3년 | (0%) 즉시 |
| 비철금속 | 헤어린스 | (8%) 5년 | (0%) 즉시 |
| | 동과 그 제품 | (8%) 즉시, 3년 | (0~3%) 즉시, 3년 |
| 석유화학 | 알루미늄과 제품 | (8%) 즉시, 3,5년 | (0~6.5%) 즉시, 3, 10년 |
| | 합성수지 | (6.5%) 즉시, 3,5,10년 | (6.5%) 즉시, 3,10년 |
| 합판류 | 합성고무 | (6.5%) 즉시, 5,10년 | (0%) 즉시 |
| | 합판 | (8~12%) 10년 | (3~8%) 10년 |
| | 섬유판 | (8%) 10년 | (3.9~6%) 10년 |
| 기타 | 파티클보드 | (8%) 10년 | (0%) 즉시 |
| | 구두(드레스화) | (13%) 즉시 | (0~55.3%) 즉시, 12(비) |
| | 가족제가방 | (8%) 즉시 | (8~10%) 즉시 |
| | 복사기 | (8%) 즉시 | (0~3.7%) 즉시 |
| | 서류절단기 | (8%) 즉시 | (0~2.6%) 즉시 |

자료 : 전라북도 FTA 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2011, 11

3) 한·미 FTA 주요 이슈

○ 쟁점사항

-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 미국계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위하여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은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나라에 개방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

- 래치(톱니바퀴 역추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음
- 스냅백(snapback) 조항 : 한국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미국이 자동차 특혜 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철폐 할 수 있음

○ 한·미 FTA 재협상의 주요 내용('10.12.3)

- 미국 요구사항인 승용차 관세조정 및 세이프가드 도입을 수락하고 우리 요구사항인 냉동 돼지고기(관세25%)의 관세철폐 시한 2년간 연장

〈표 2〉 한·미 FTA 재협상 주요 내용

| 영역 | 2010년 재협상 결과 | | 2007년 협정문 | |
|--------------------|--|---------------------------------------|--|-------------------------------|
| | 한국 | 미국 | 한국 | 미국 |
| 승용차 관세 철폐 | 발효 즉시 8% → 4%인하 (4년간 유지) | 발효 이후 2.5% 관세를 4년간 철폐 유예 | 8% 관세 즉시철폐 | 3천cc이하 즉시 철폐 3천cc초과 3년내 철폐 |
| 화물차 관세 철폐 | 10% 관세 즉시 철폐 | 발효 이후 25% 관세를 7년 동안 유지, 그 이후 2년내 균등철폐 | 10% 관세 즉시 철폐 | 발효 이후 25% 관세를 10년내 균등 철폐 |
| 돼지고기 수입관세 | 2012년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철폐 | | 미국 원산지 냉동 기타 돼지고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철폐 | |
| 협정이행 (Enforcement) | 스냅백 조항을 2007년 협정문에 담았는데,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의 협정 이행 의무를 다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강화 | | 자동차 관련 특별 분쟁해결 절차로 '스냅백' (snap back) 조항 도입 | |

3. 기존 FTA 사례를 통해 예상되는 한·미 FTA 영향

1) 한·칠레 FTA

○ 추진일정

- 한·칠레 FTA는 1998년 11월 첫 자유무역 협정 추진국으로 칠레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하여 2002년 10월 25일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으며, 2004년 4월 1일 정식 발효되었음

○ 주요내용

-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체결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음
-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 한 품목을 제외하고

는 즉시철폐를 제시하였고, 칠레 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 즉시철폐를 제시했으나,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으로 구성
- 관세의 단계적 철폐, 쿼터 수입허가 등의 관세장벽 완화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정부조달, 경쟁정책,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역규범의 개선
- 상호간의 투자기회 확대 및 투자보호 극대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투자 활성화
-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보장 및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하는 등 서비스 교역의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관세 철폐나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험이 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등 수입급증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

〈표 3〉 우리 농업양허안의 개요

| 구분 | 적용대상 품목의 예 |
|-------------|----------------------------|
| 즉시 | 종유,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
| 5년철폐 | 당류, 초콜릿, 면류 등 |
| 7년철폐 |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
| 9년철폐 | 기타 과일주스 |
| 10년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 16년철폐1) |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
| TRQ+DDA2) | 쇠고기, 닭고기, 유자, 자두, 감귤 등 |
| DDA 이후 논의3) |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
| 계절관세4) | 포도 |
| 예외 | 쌀, 사과, 배 |

주 : 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 후 논의
 3) DDA 타결 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10년균등)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2002

〈표 4〉 제조업 구분별 칠레의 관세인하

| 구분 | 적용대상 품목의 예 |
|-------|--|
| 즉시 |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
| 5년철폐 |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
| 7년철폐 |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
| 10년철폐 |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
| 13년철폐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봉), 조명기구 등 |
| 예외 | 냉장고, 세탁기 등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2002

(1) 한·칠레 FTA 체결전 예상 Issue

○ 일반현황

- 우리 기업의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에

대한 수출의 확대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의 우리 기업 참여 확대 가능

-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으로는 쌀, 사과, 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한편, 마늘, 양파, 고추 등의 농산물과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DDA협상 이후 논의 및 일정량의 쿼터 허용 또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음

○ 수출 예상 효과

- 칠레 수출에 대해 자유화 대상 전 업종에 걸쳐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자동차의 수출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다음으로는 금속제품, 기계설비의 수출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의 경우, 2004년 현재 한국이 일본에 이어 칠레 시장 점유율 2위이지만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근소한 차이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칠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

〈표 5〉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 구분 | 경제적효과 |
|------------|--------|
| 후생수준(억 달러) | 9.6 |
| 수입물가(%) | -0.001 |
| GDP | 0.01% |
| 대 칠레 수출 | 6.6억\$ |
| 대 칠레 수입 | 2.6억\$ |
| 대 칠레 무역수지 | 4.0억\$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2002

○ 수입 예상 효과

- 우리 농업계는 칠레에 대한 농산물 관세철폐가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가능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늦추거나 일정량의 쿼터 물량을 칠레 측에 배정해 주는 것

- 으로 합의
- 농산물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포함시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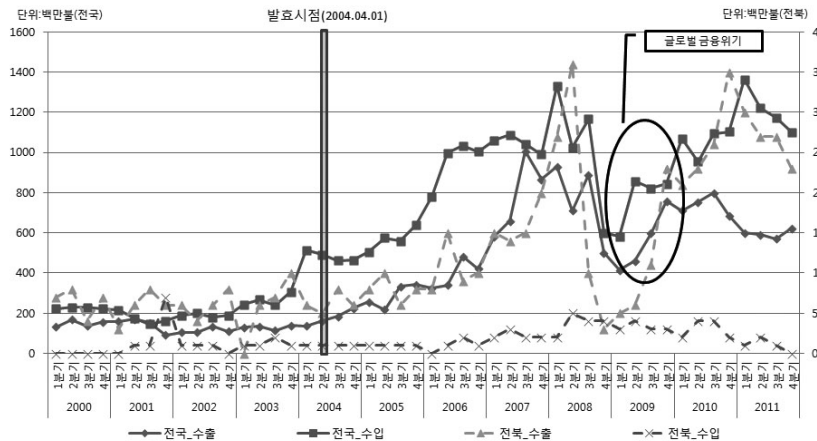
- FTA 발효 이후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우려했던 농림축산물 수입증가는 낮은 수준에 그침
-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경쟁국과 FTA 발효 이후 치열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FTA의 관세인하 혜택이 현지 시장진출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칠레 투자는 FTA 발효 이후 다양한 업종과 목적으로 확대되며 증가
- 종합적으로 한·칠레 FTA 발효 후, 전북의 칠레와의 수출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무역수지 또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음

(2)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평가

○ 교역동향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발효 전의 4.6배로 증가
- FTA 발효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관세감축이 시작된 품목들의 향후 수출증가가 기대됨

〈그림 1〉 한(전북)·칠레 수출·입 추이(분기별)



○ 외국인투자 증가

- FTA에 대한 기대효과로 발효 직전인 2003년부터 對칠레 투자가 급증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對칠레 투자 업종은 2000년 이전까지 동광 개발 관련

- 투자가 위주였으나, FTA 발효 이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됨
- 투자 목적 역시 현지시장 진출, 수출촉진, 원자재 확보, 저임금 노동 활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표 6〉 우리나라의 對칠레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천달러, 건)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건수 | 3 | 1 | 0 | 3 | 3 | 5 | 9 | 12 | 4 | 7 | 4 |
| 금액 | 1,063 | 63 | 0 | 15,300 | 1,782 | 3,306 | 4,931 | 30,331 | 2,720 | 6,054 | 39,932 |

자료 :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국제무역연구원

- FTA 발효 전에 전무했던 칠레의 대한민국 투자는 2004년부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미미함

○ FTA 체결에 따른 가격효과

- 칠레의 수출 주력품목인 포도, 돼지고기, 포도주의 경우 관세 인하·철폐에 따라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

- 칠레산 와인의 경우 FTA 발효에 따라 관세율은 종전 15%에서 12.5%로 인화된 상태로 관세로 인한 수입 단가는 몇 백원 수준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판매업체들이 유통비와 마케팅 비용에 전가시켜 가격 변화가 없음

- 한·칠레 FTA 발효 이전 칠레산 포도, 돼지고기, 포도주의 가격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나, FTA 체결이후 전체 평균에 비하여 상회하는 가격을 형성하며, 우리나라에서 칠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짐

〈표 7〉 칠레산 삼겹살 가격 및 수입량

(단위 : 1kg/달러, t)

| 구 분 | | 2003년 | 2005년 | 2008년 | 2010년 |
|------------------|------|-------|--------|--------|--------|
| 수입가격 (1kg/달러) | 전체평균 | 2.51 | 3.25 | 3.59 | 3.31 |
| | 칠레산 | 2.48 | 3.40 | 3.75 | 3.48 |
| 수 입 량(ton) | | 9,312 | 14,667 | 13,935 | 19,198 |

자료 : 농민신문, 관세인하, 해택은 수출·유통업자가 골격, 2011.11.28

2) 한·EU FTA

(1) 추진일정

- 한·EU FTA 협상타결(2009. 7. 13)후 1년 3개월만에 정식 서명 완료(2010. 10. 6)
- 정식 서명이후 유럽의회와 우리나라의 비준절차를 걸쳐 2011. 7. 1 발효

(2) 주요내용

- 전 공산품목에 대해 EU측은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 철폐
-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통해 합의하였으며, 자동차 원산지기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합의
-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한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할 분야는 소수이며,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등에서는 한·미 FTA 개방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합의하였으며, 일부 통신서비스와 환경서비스는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하되 유예기간과 포괄적 규제권한을 유보함
- 농산물 양허협상에서 한국 측은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였으며, EU 측은 상업적 이익이 있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

(3) 한·EU FTA 체결전 예상 이슈

○ 일반현황

- 한·EU FTA는 수출과 수입의 동시 증가가 예상되므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
- 한국은 對EU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었으므로, 관세인하는 종합적으로 한국에 득의 효과가 예상됨

○ 수출 예상 효과

- 주력 수출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비중과 관세율이 모두 높은 품목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됨
- 유럽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은 자동차산업은 FTA를 계기로 10%가 넘는 관세율이 철폐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 선박과 무선통신기기는 관세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EU 시장 내의 경쟁력과 부수적 효과로 인하여 수출 증가 기대
- 석유화학, 기계류 등은 수출 비중이 중간 수준이나, 관세가 높은 품목은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반도체, 컴퓨터 등 수출 비중이 낮고, 관세가 낮았던 품목은 직접적인 관세혜택이 없어 수출증대 효과가 제한적
- 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수입 예상 효과

- 정밀화학, 부품소재, 자동차 등의 수입 증가 예상

- 수입 비중과 관세율이 높았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정밀화학, 산업기계류, 자동차부품 등은 국내 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세율이 높아 피해 우려를 예상함
- 수입 비중은 크지 않으나 관세율이 높은 부문에서 향후 수입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국내 자동차시장은 고급차를 중심으로 한 EU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함
- 부품·소재 부문에서는 일본산 부품·소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한국의 對일 경상수지 적자 높으며, EU로부터 주요 부품·소재 수입은 對일 수입에 못 미치나, EU의 부품·소재 산업은 수출경쟁력 면에서 일본보다 우세해 일본산 부품 및 소재 수입이 일정부분 대체될 전망. 연간 19억 달러의 對일 무역역조 개선 효과 기대
- 농산물의 경우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일부 EU 농산품

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수입대체효과 발생 예상, 가격인하로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와인 수입시장 역시 더욱 커질 전망

-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장은 상당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로 경쟁력 저하로 인해 한국 내 EU 서비스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 높음

(4) 한·EU FTA 발효 이후 평가

○ 교역동향

-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 이후 4개월간의 수출입 교역동향을 분석한 결과 EU측의 재정 위기에 따른 소비감소 등 전반적인 수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FTA가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10.7억불) 유지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표 8〉 한·EU FTA 발효 후 4개월간 교역동향

(단위:억불)

| 구분 | 2011.7월 | 8월 | 9월 | 10월* | 합계 |
|------|---------|------|------|------|-------|
| 수출 | 42.2 | 42.0 | 45.9 | 38.8 | 168.8 |
| 수입 | 44.1 | 41.1 | 38.3 | 34.6 | 158.1 |
| 무역수지 | -1.9 | 0.9 | 7.6 | 4.2 | 10.7 |

자료: 무역협회(KITA.net)

주: 발효시점 이후 성장률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성장률을 의미

- 위의 〈표 8〉을 살펴보면 한·EU FTA 발효 이후 4개월간 대 EU수출은 168.8억불 수입은 158.1억불로 10.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전년 동기 와 대비할 때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47.1억불→

10.7억불)하였으나, 이는 FTA와 관계없이 선박의 수출 감소(40.6억불→19.3억불) 및 항공기 수입의 증가(0.7억불→7.7억불)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對EU 수출입 10대 품목 순위(금액기준)

| 순위 | 수출금액 기준 | | | | 증감율(%) | 수입금액 기준 | | | | 증감율(%) |
|----|--------------|----------|----------|--------|----------|---------|----------|----------|--------|--------|
| | 품목 | 수출액(백만불) | | 증감율(%) | | 품목 | 수입액(백만불) | | 증감율(%) | |
| | | 전년 동기 | 11.7~10월 | | | | 전년 동기 | 11.7~10월 | | |
| 1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4,057 | 1,933 | -52% | 자동차 | 891 | 1,102 | 24% | | |
| 2 | 자동차 | 964 | 1,837 | 91% | 항공기 및 부품 | 69 | 765 | 1,009% | | |
| 3 | 석유제품 | 850 | 1,585 | 86% | 농약 및 의약품 | 689 | 713 | 3% | | |
| 4 | 자동차 부품 | 1,107 | 1,331 | 20% | 반도체제조용장비 | 787 | 650 | -17% | | |
| 5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1,859 | 1,338 | -28% | 원동기 및 펌프 | 618 | 650 | 5% | | |
| 6 | 반도체 | 1,431 | 802 | -44% | 기계요소 | 487 | 607 | 25% | | |
| 7 | 무선통신기기 | 1,302 | 731 | -44% | 자동차부품 | 486 | 574 | 18% | | |
| 8 | 영상기기 | 713 | 590 | -17% | 계측제어분석기 | 426 | 534 | 25% | | |
| 9 | 철강판 | 451 | 493 | 9% | 정밀화학원료 | 438 | 465 | 6% | | |
| 10 | 컴퓨터 | 507 | 450 | -11% | 반도체 | 454 | 390 | -14% | | |

자료: 관세청, 한·EU FTA 발효 후 4개월간의 교역동향 분석, 2011.11



- EU로 수출되는 전체 202개 품목(지경부 수출입품목 분류기준) 중 137개 품목(68%)의 수출이 증가하여 한·EU FTA 효과가 전체 산업에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91%), 자동차 부품(20%), 석유제품(87%)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 對EU 주요 수입품목 중 자동차(24%), 자동차 부품(18%), 기계요소(25%)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반도체 제조용장비, 반도체 등의 수입은 각각 17%, 14% 감소

○ 외국인투자 증가

- 한·EU FTA의 긍정적 효과는 교역 성과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서도 나타남.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하반기 EU의 對한 투자 상반기 대비 확대되어 29.8억 달러 기록. 전년대비 증가수준을 살펴보면 EU의 對한 투자는 2010년 하반기 1,789백만 달러에서 2011년도 하반기 2,984백만 달러로 약 67% 증가. 2011년 EU의 對한 투자 건수는 375건으로 23건 줄었지만 투자 1건당 투자 규모는 확대되어 총 신고금액은 18.3억 달러 증가한 50.3억 달러에 달함

<표 10> EU의 對한 외국인 투자 실적

(단위 : 건수, 억 달러)

| 2010년 | | 2011년 | | | | | | | |
|-------|------|-------|------|------|------|------|----------|-------------|------|
| 전체 | | 상반기 | | 하반기 | | | | 전체(전년대비 증감) | |
| 신고건수 | 신고금액 | 건당금액 | 신고건수 | 신고금액 | 신고건수 | 신고금액 | 신고건수 | 신고금액 | 건당금액 |
| 398 | 32.0 | 0.08 | 194 | 20.5 | 181 | 29.8 | 375(-23) | 50.3(+18.3) | 0.13 |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명진호 자료 재인용

(5) 한·EU FTA 예상과 결과 비교

- FTA 체결 이전 무관세로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품목에는 조선, 반도체, 휴대폰, LCD, 철강판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FTA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일어나는 품목에는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합성수지, 일반기계 등이 포함됨

- 따라서 한·EU FTA 발효 전의 기대와 발효 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관세철폐 품목들의 수출입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FTA 발효시점을 기점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
- 선박의 경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선박은 무관세 품목이었기 때문에 FTA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표 11〉 한·EU FTA 체결 전후 예상결과 비교

| 구분 | 이 전 | 이 후 | 비 고 |
|-----|----------|---------------|--------------------------------|
| 수 출 | 자동차 | 자동차 | 완성차의 수출입 모두 증가 |
| | 선박 | - | 외부적 요인 |
| | 무선통신기기 | - | 유럽수출비중 낮음 |
| | 석유화학 | 석유화학 | 관세철폐로 수출량 급증 |
| | 기계류 | 기계류 | 금속공작, 유리가공기계 등의 수출 증가 |
| | 반도체, 컴퓨터 | - | 유럽수출비중 낮음 |
| | - | 자동차부품 | 자동차의 수출증가와 함께 부품수출 동시 증가 |
| | - | 석유제품 | 주요수출품목의 관세철폐로 수출량 급증 |
| | - | 축산가공품 | 금액은 작으나 급격한 증가세 시현 |
| | 피 해 | 농산물 | - |
| 서비스 | | - | 서비스산업은 EU가 우위 |
| - | | 선박 | 유럽재정 위기 이후 선박 수주물량 감소 |
| -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무관세, 유럽재정위기, 유럽수출비중 낮음. |
| - | | 무선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 무관세, 유럽재정위기, 유럽수출비중 낮음. |
| 수 해 | 부품소재 | - | 對일 수입의존도 완화 기대 |
| | 농산물(와인) | - | 국내 와인시장 확대 기대 |
| 수 입 | | 자동차 | 무역수지 흑자 |
| | 자동차 | - | 완성차의 수출입 모두 증가 |
| | 정밀화학 | 정밀화학 | 수입 급증 |
| | 부품소재 | - | EU의 경쟁력으로 수입 증가 |
| | 서비스 | - | 한국 서비스 시장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 |
| | - | 육류 | 저렴한 EU산 육류 수요 확대 |
| | - | 항공기 및 부품 | FTA 발효 후 항공기 3대 신규수입 |

4. 전북의 입장에서 본 한·미 FTA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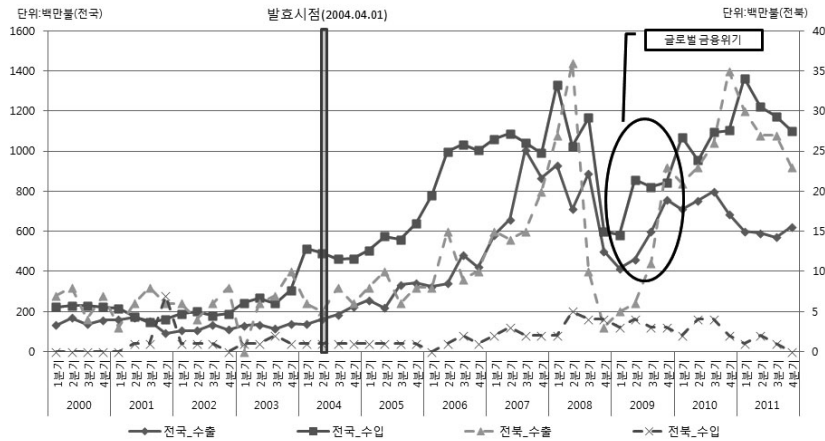
1) 거시경제적 영향

○ 한·칠레 FTA로 본 거시경제 영향

- 한·칠레 수출·입은 FTA 발효 후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냄
- 전북·칠레 수출·입을 살펴보면, 전국과 비슷한 시기에 수출규모의 증가가 발효 이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나타남. 다만 전국대비 전북의 수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 추세임. 또한 수입의 경우 그 규모는 최근(2008년)부터 증가하였으나 비중의 변화가 없고 수입 규모 자체가 낮음. 또한 전국 수출·입 평균성장률과 발효시점 이후 성장률은 전북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남. 이는 전북의 수출 규모 증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 종합적으로 한·칠레 FTA 발효 후, 전북은 칠레와의 수출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한(전북)-칠레 수출·입 추이(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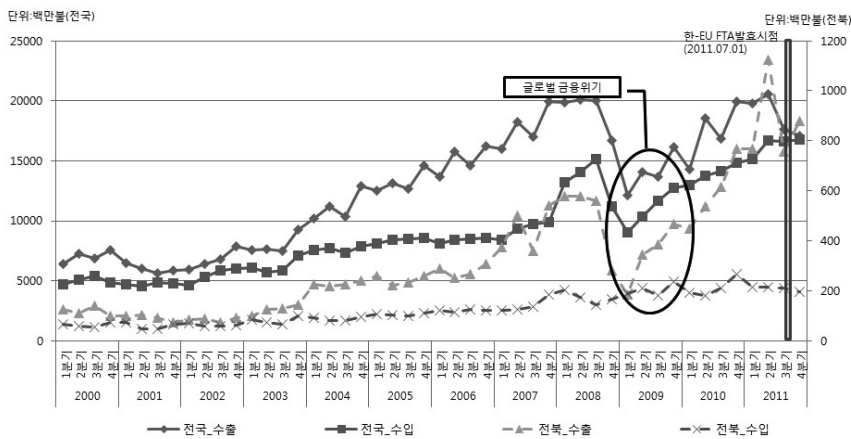
○ 한·EU FTA로 본 거시경제 영향

- 한·EU 수출·입은 2003년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왔음. 특히 2003년 EU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및 전북의 수출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다만 분기별로 계절성을 보임)
- 수입도 수출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 규모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국내 경제가 위기에 있었던 때

이기 때문임¹⁾

- 특히 전북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속도로 EU와의 수출이 증가를 보임. 그러나 수입의 경우는 오히려 약간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종합적으로 한·EU FTA 체결 후 전북은 EU와의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한(전북)-EU 수출·입 추이



○ 한·미 FTA로 본 거시경제 영향

- 한·미 수출·입은 2001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반면, 전북의 대미수출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임
- 수입도 수출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변화폭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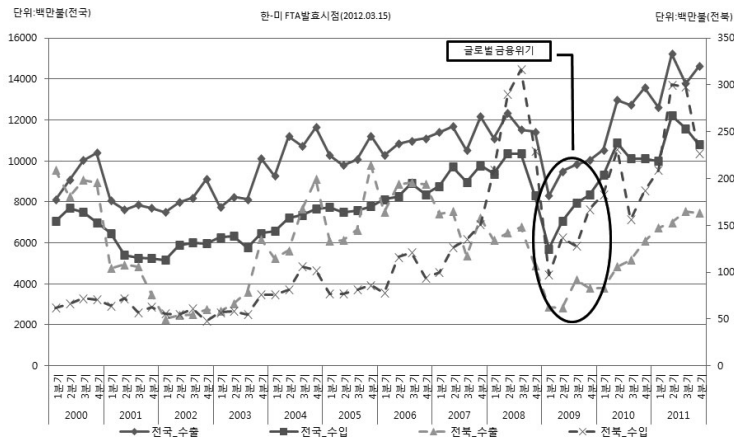
- 전국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의 대미교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안정적 증가를 보이는 수출과 큰 변동을 보이는 수입으로 인하여 적자폭이 분기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종합적으로 한·미 FTA 체결 후 전북은 미국과의 교역 확대는 가져올 수 있으나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은

1) "국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미 달러 약세로 인한 유로화 절상, 국내적으로는 SK 비자금, LG카드 부실, 대선자금 수사, 북핵위기 등 정치·사회적 돌발 사태로 경제심리가 과도하게 위축, 내수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2003년 9월이후 수출 증대"(2003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 2003.12.34, SERI CEO Information에서 인용)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에 대한 글로벌소싱의 강화로 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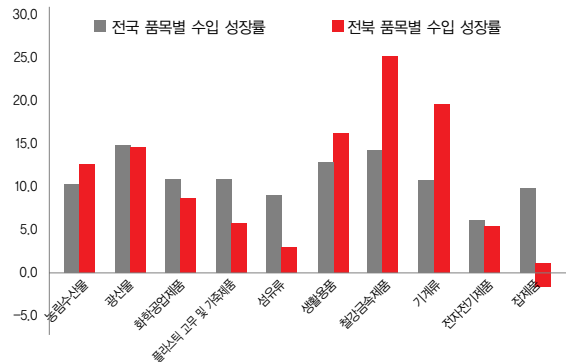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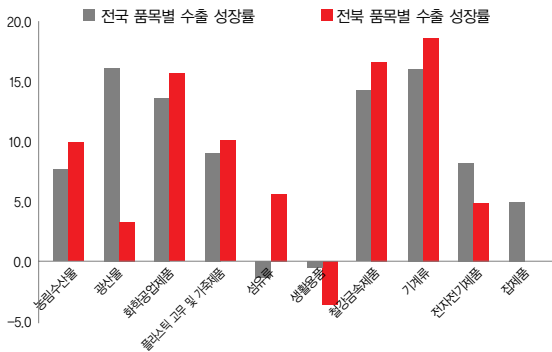
혜택을 보는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그림 4〉 한(전북)-미 수출·입 추이



- 전북의 對미 수출을 살펴보면,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출이 2000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섬유류 수출은 2009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자동차부품에 해당하는 철강금속과 기계류 제품은 급속하게 수출성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철강금속제품은 2004년을 저점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류의 경우는 커다란 기복 없이 기존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화학공업제품 또한 최근 급속한 수출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산업내 무역이 활발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음
- 전라북도의 對미 수입을 살펴보면, 농림수산물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추세로 판단할 경우, FTA로 인한 對미 농산품의 관세 인하 시 수

- 입 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섬유류의 경우, 꾸준한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2010년 이후 약상승의 기세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의 소비패턴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철강금속 및 기계류 즉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는 산업의 경우,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철강금속의 경우 기계류 제품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화학공업제품 또한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하락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의 수출은 최근 농수산식품,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류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은 농산물,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2) 미시경제적 영향

(1) 생산측면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제조업 측면에서 교역의 증대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등 특정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무역수지에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등 산업에서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화학분야는 적자가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가 특정 산업에 편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전체에서 2,110억원의 생산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화학, 섬유, 전기전자등에서 생산의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이 기대됨

<표 12> 전북 제조업 對미 수출입 영향 (단위:백만달러)

| 주요 업종 | 수출 증가 | 수입 증가 | 무역수지 |
|--------|-------|-------|------|
| 자동차/기계 | 28 | 1 | 27 |
| 섬유 | 8 | 0 | 7 |
| 전기전자 | 0 | 0 | 0 |
| 철강 | 0 | 0 | 0 |
| 화학 | 1 | 3 | (2) |
| 생활용품 | 0 | 0 | (0) |

자료 : 산업연구원,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 2007

<표 13> 전북 제조업 부문 생산 증가액 (단위:억원)

| | 연평균 | 연평균 | | |
|--------|-------|-------|-------|--------|
| | | 1~5년 | 6~10년 | 11~15년 |
| 자동차 | 1,791 | 1,408 | 1,983 | 1,983 |
| 전기전자 | 58 | 28 | 73 | 73 |
| 섬유 | 94 | 71 | 103 | 107 |
| 화학 | 134 | 50 | 177 | 174 |
| 일반기계 | 19 | 5 | 25 | 25 |
| 철강 | 10 | 5 | 13 | 13 |
| 생활용품 | 5 | 3 | 5 | 5 |
| 제조업 전체 | 2,110 | 1,569 | 2,379 | 2,381 |

자료 : 산업연구원,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 2007

○ 부정적 영향

- 경쟁력이 없는 분야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

- 화학분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농축산분야의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축산 분야 피해의 80%가 축산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위협이 예상되며 자본을 앞세운 거대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피해가 예상됨
- FTA로 인하여 생산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희비가 엇갈려 산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2) 소비측면의 영향

○ 소비자후생 향상에 기여

- 일반적으로 FTA가 생산자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가 공존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하에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한·미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물가지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한·미FTA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식료품 등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관세가 철폐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금보다 더 안정을 찾을 것이란 예상도 제시되고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 개방을 통해 누리게 될 장기적인 혜택은 단기적인 피해를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는 소비자후생의 극대화 측면에서 개방을 통한 경쟁이 단기적인 피해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소비자의 삶을 향상시키게 됨을 의미함

○ 국내 재화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따라 독점 강화 우려

- 소비자후생의 향상은 시장 개방을 통하여 국내 생산자가 미국의 생산자들과의 가격 또는 품질로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며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지고 질은 좋아질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 이후 상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경쟁력의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에 의한 독점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즉 경쟁력 격차가 큰 서비스, 농업은 물론 정밀화학, 정밀기계, 일반기계, 일반화학 등에서는 독점이 강화되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후생은 감소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음

○ 체감적 가격하락에는 부정적

- 최근 FTA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제품에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어 특정상품의 가격하락은 보이고 있음
- FTA로 인해 수입의 증가를 통한 물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입 증가로 인한 물량적 공급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가격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한·칠레의 효과에서 본 바와 같이 가격인하 기대효과가 0.001%에 달하여 한미 FTA로 인한 체감적인 가격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장기 측면에서 미국산의 시장점유 비중 증가에 따른 가격조절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후생의 유통산업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체감적인 물가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움

3) 주요 산업별 영향

○ 자동차 분야

- (상용차) 한국은 즉시철폐, 미국은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2~3년간 균등철폐
- (전기차) 한국은 8%를 4%로 인하, 미국은 2.5%를 4년간 균등철폐
- (승용차) 한국은 8%를 4%로 인하, 미국은 2.5%를 4년 후 철폐
- (부품) 양국 모두 발효일에 즉시 철폐

- 자동차산업은 수출액(44억불)이 도 전체 수출액의 42%를 차지하고, 생산액(7조)은 도 전체 제조업생산액의 2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력산업임
- 전라북도의 자동차 對미 수출액('10년 145백만불)은 수입액('10년 6백만불) 대비 24배로 크게 높으며, 도의 對미 수출·입액 비중은 도 전체 자동차 수출·입액의 약 3% 수준으로 對미 시장에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FTA체결로 인한 도내 자동차업체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 자동차산업 對미 【수출액】('09)95백만불→('10)145백만불, 【수입액】('09)10백만불→('10) 6백만불

- 승용차 부품의 경우 즉시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업체가 글로벌아웃소싱 전략으로 대응할 경우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상용차 영향: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닛(후드) 타입의 화물차의 경우, 국내에서는 수요·생산이 없어 관세철폐에 대한 수출·입 증대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기타 제조업

- '10년 기준 완성 자동차를 제외한 전복의 對미 수출규모가 연간 4억 달러에 그쳐, 지역경제의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FTA협정 타결로 추가 對미수출 금액은 1,754만달러(198억원) 추정('10년 기준)
- 다만, 전복의 사양 산업인 의류에 대한 쿼터(비관세장벽) 폐지로 섬유산업의 활성화 기대(2010년 기준 對미 섬유 수출은 980만 달러)
- 수출과 달리 수입의 경우 일본산 부품 및 소재를 미국으로부터 대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對일 의존적 자본재 수입구조가 극복되는 계기 (한·미 FTA로 평균 4% 내외의 미국 자본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 전망)

○ 농업분야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도 농업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조 26백억원, 연평균 842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전국 15년간 연평균 감소액 8,150억원의 10.3% 수준)

- (쌀) 협상에서 제외되어 영향 없음
- (과실류) 식물방역법상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10~20년 장기 관세철폐로 생산 감소액은 연간 96억으로 11% 정도 차지
- (축산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생산 감소액이 669억으로 전체의 80% 정도 차지
- (채소·곡물) 채소류는 운송 등의 문제로 수입량은 많지 않으나 과일 대체 등으로 과채류 등에 영향이 예상되며, 곡류중 두류(콩) 수입이 증가 예상

- 재협상 내용

【 재협상 ('10. 11~12월)
 ⇒ 대미 돼지고기 수입의 약 73%('10년 기준 135백만불)를 점유하는 돼지고기 냉동목살의 관세 폐지시기를 당초 '14.1.1일에서 '16.1.1일로 2년간 연장

| | 현행 관세 | 2012년 | 2013.1.1 | 2014.1.1 | 2015.1.1 | 2016.1.1 |
|----|-------|--------|----------|----------|----------|----------|
| 당초 | 25% → | 16.7 → | 8.4 → | 0 | - | - |
| 변경 | 25% → | 16 → | 12 → | 8 → | 4 → | 0 |

- 《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 》

〈 표 14〉 전북 제조업 부문 생산 증가액

(단위: 억원)

| 구분 | 전국 | | 전북 | |
|-----|---------|-------|--------|-----------------|
| | 15년 합계 | 연평균 | 15년 합계 | 연평균 |
| 총 계 | 122,252 | 8,150 | 12,627 | 842 *전국대비 10.3% |
| 축 산 | 72,993 | 4,866 | 10,044 | 669 (80%) |
| 과 수 | 36,162 | 2,411 | 1,442 | 96 (11%) |
| 채 소 | 9,828 | 655 | 838 | 56 (7%) |
| 곡 물 | 3,270 | 218 | 303 | 20 (2%)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11. 8. 5)」

○ 서비스분야

-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전북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교역이 없는 상황에서 교역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칠레 FTA, 한·EU FTA 사례를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긍정적 측면은 對 미 투자유치가 용이해진다는 면이 있으나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 시장 독점이 우려됨

5.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1) 대응전략

○ 제조업 분야

- (자동차) 상용차의 경우 미래그린 핵심부품 R&D 지원과 상용차부품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로 수출산업화 추진
- (기타 제조업) 산업내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발굴 필요
- 개발된 부품의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KOTRA 등 국제무역상사와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 농축산업 분야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직접적인 피해분야(축산·과수)에 농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 집중 지원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생산·가공·체험·관광이 결합한 6차 산업 활성화
-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한 농어가 경영안정 확충
- ⇒ '12~' 20년까지 FTA관련 73개사업에 42,972억 원 투자【 국비 16,842(40%), 도비 4,925(11%), 시·군비 12,209(28%), 기타 8,996(21) 】

○ 서비스(소상공인) 분야

- 도 자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및 E-비즈니스 등 지식서비스 사업진출 지원
-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보호 (전통시장 현대화 및 경영지원 활동 강화, 중소도매물류센터 규모화 및 활성화, 지역 고유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 중소기업 보호활동 강화 (대기업 ↔ 중소기업 구매상담 및 구매 강화, 중소기업 물품 구매활동,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 수요(소비자의 효용) 분야

- FTA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내 중소상공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육성지원 확대
-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유도
- 지역내 수입상간 가격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 등을 통해 정책 개선

- 지역내 소비가 1차적으로는 효용극대화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과 2차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과 같은 투자적인 기능을 위한 '소비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2) FTA 활용방안

○ (홍보) 기업 및 시·군의 수요에 맞는 홍보

- 전라북도내 중소기업 CEO 및 지역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On-Off 라인을 통해 손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홍보 브로셔 및 FTA활용 매뉴얼 제작 및 배부, FTA 주요 정보 및 동향 메일 발송
- FTA 네트워킹 산업 유치(FTA 지원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정보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 (FTA인력양성) FTA 전문가 양성교육 확대

- 기업실무자 대상 FTA 관련 전문교육(원산지 관리사 등) 실시를 통한 전문가 양성
- 관세사·원산지 관리사 양성 및 도내 대학 내 FTA 정규 강좌 개설 (FTA School(무역협회)를 통한 전문가 육성, FTA 활용전략 강좌 등)

○ (대응체계) 다양한 FTA에 대한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 구축

- [전라북도 FTA 활용지원센터] 를 통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관세사, 회계사) 배치로 "인증수출자" 지원 및 원산지증명제도 절차안내, 서류작성 지원 등
- FTA 원산지 인증지원산업 유치(원산지인증수출자 상담 및 현장진단, 진단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지원)
- FTA 컨설팅 지원단 운영 (FTA 원산지 증명관련 맞춤형 기업애로 상담 및 해외시장 개척, 해외 물류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참고자료〉

- 김형주, 한·EU FTA 3개월 평가와 한·미 FTA, LG경제연구원, 2011.10
- 관세청 보도자료, 한·EU FTA 발효 후 4개월간의 교역동향 분석, 관세청, 2011.11
- 명진호, 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2.3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EU FTA 발효 6개월 효과분석, 외교통상부, 2012.2
- 코트라, 한·EU FTA 발효 6개월 바이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동향 및 수출 확대 사례조사, 코트라, 2011.12
- 이종규 외,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2002
- 국제무역연구원,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 전라북도 FTA 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2011. 11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 FTA 종합지원포털, <http://ftahub.go.kr>
-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 <http://ftahub.go.kr/gyeonggi>
- 전북 FTA 활용지원센터, <http://ftahub.go.kr/jeonbuk>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